

잊혀져가는 광주 역사 기록으로 묶다

조선대 링크플러스 사업단 자료집 발간
 ‘...청춘 DNA를 간직한 총장료’
 ‘민주화의 햇불 금남로’ 두 권 발간
 삶과 추억 잇는 광주 건축물 등 기록

광주 시민들의 삶과 추억이 깃든 근대건축물들이 사라지고 있다. 도심재개발 등으로 기억창고와 같은 건축물, 골목, 삶의 역사가 하나하나 지워지고 있는 것이다.

조선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단장 김춘성)이 ‘광주의 배꼽, 청춘 DNA를 간직한 총장료’와 ‘민주화의 햇불 금남로’ 등 두 권의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는 광주의 잊혀져가는 모습들을 기록으로 ‘묶고 잇는’ 사업의 첫 결실이다. 사업단이 ‘잘나와 역겹이 빛은 광주’ 자료집 제작프로젝트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렇다.

자료집에 포함된 스토리텔링과 고증자료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통해 그 때 그 시절의 사회·문화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조선대 링크플러스사업단은 학교의 다양한 인문학적 인프라와 자료를 기반으로 재학생, 졸업생, 청년단



조선대 링크플러스사업단 관계자들이 ‘광주의 배꼽, 청춘 DNA를 간직한 총장료’와 ‘민주화의 햇불 금남로’ 등 자료집을 선보이고 있다. <조선대 제공>

체와 협업, 광주의 경제·문화·역사 1번지인 총장료, 금남로의 풍성한 스토리를 책으로 엮었다.

김춘성 조선대학교 링크플러스사업단장은 “호남상권 1번지 총장료와 광주정신 1번지 금남로의 상징적 의미는 매우 크다”며 “광주의 자긍심인 총장료, 금남로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은 물론 광주의 100년 된 학교·병원·극장·공원 등을 연재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잊혀져가는 광주’를 ‘기억하는 광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발간 책임을 맡은 김중원 교수는 “기록은 그 자체가 역사다. 잊혀지는 광주가 안타까워 늦었지만 기록하고 담기 위한 일을 시작했다”면서 “오늘의 광주를 만든 역사를 온전하게 후대에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여수상의, 지역아동센터·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여수상공회의소는 최근 설을 맞아 지역 다문화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에 먹거리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필코스메틱코리아, 전남모금회에 방역물품 기탁



필코스메틱코리아(대표 임혜성)가 최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동일)에 5000만원 상당 방역물품을 기탁했다. 방역물품은 마스크 5만장과 손소독제 1만개로 구성됐으며, 코로나19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광주 남구, 남자양궁팀 창단 위해 4개 기관과 업무 협약

광주 남구청 남자양궁팀이 4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갖고 창단작업을 본격화했다.



남구청은 15일 중회의실에서 김병내 남구청장, 김광여 광주시양궁협회장, 이평형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 박재홍 남구체육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협력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팀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남구청, 광주시체육회, 광주시양궁협회, 남구체육회 등 4개 기관은 남구청 남자양궁팀 창단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국제대회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또 국제양궁장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남구민의 체력증진, 양궁 스포츠클럽 공모사업 추진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선수단은 국가대표 이승운(26), 김승운(33), 임지완(30), 이진희(24) 등 선수 4명과 지도자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농협 전남본부, AI 차단 특별방역



방역을 실시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사진)는 광주·전남지역 18개 축협과 설 명절 기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농협을 포함한 방역당국은 2월10일과 15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고 특별

전남본부는 방역 차량 101대를 투입해 가금농가 주변 및 철새도래지 소독을 강화했다.

박 본부장은 “고병원성 AI 조기 종식을 위해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종사자 임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국한우협회고흥지부, 어려운 이웃에 ‘한우 나눔’



전국한우협회고흥지부는 설을 맞아 최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달라며 한우 불고기(300만원 상당)를 고흥군에 기탁했다. 기탁된 한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고흥 지역 노인복지시설 15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TV프로그램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밥이 되어라(재)	35 불새 2020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45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재)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재난탈출 생존왕 스페셜 55 나의 살던 고향은	00 달이 뜨는 강(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재) 5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재)	00 12 MBC 뉴스 20 와우와오 롤링프렌즈 50 뽀뽀뽀 친구친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박미선과 돈원리 돈해피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 50 UHD 숨터(재) 55 나의 살던 고향은(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이슈 픽 썸과 함께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아날로그 라이프 핸드메이드(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4]	00 사사건건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TV는 사랑을 싣고(재)	00 기분 좋은 날(재)	00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떠나는 여행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불타는 청춘(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0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최강 1교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전라도 매력청	50 미스 몬테크리스토	10 밥이 되어라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누가 뭐래도	30 노래가 좋아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달이 뜨는 강	20 사진 정리 서비스 폰클렌징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시사토론 '10' 50 더 라이브	40 육탄방의 문제아들	40 PD수첩	20 불타는 청춘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35 쓰리박 스페셜	
[12]	10 KBS결착 다큐멘터리 (조선의 스포츠맨들)(재)	0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스튜디오 K(재) 50 KBS 중계(재)		10 펜트하우스 코멘터리 30 나이트라인

EBS1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티시타임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7:00 꼬마버스 타요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니
07:15 출동! 슈퍼펍	12:25 지식채널e	19:00 위 배어 베어스 : 곰 버라이어티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2:30 클래식 e	19:30 자이언트 팽TV
07:45 꼬마하이어 슈퍼패	13:00 EBS 다크프라임	19:45 극한직업 스페셜
08:00 당동명 유치원	13:55 미래교육 플러스	20:35 아주 특별한 기행
08:30 두다다쿵	14:45 도라도라 영어나라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15 도전! 나도 과학자	<메이킹 북아메리카 -시장을 달려서, 데스벨리와 캐니언랜드>
09:00 뽀롱뽀롱 뽀로로	15:45 몬카트	21:30 한국기행
09: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	16:15 올리 앤 문	<겨울이 가기 전에 2부 산사에 눈이 내리면>
09:30 명탐정 피트	16:30 당동명 유치원(재)	21:50 EBS 다크프라임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해와와 해와	22:45 건축탐구 - 집
10:30 한국기행	17:00 EBS 뉴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마사와 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6일(음 1월 5일 乙未) ☎ 010-9790-8237

<p>36년생 적극성을 띠면더 훌륭한 성과가 기대 된다. 48년생 앞면서도 빠져드는 우를 범하지 말라. 60년생 기회가 다가 오고 있으니 예의 주시하자. 72년생 북학적이거나 다기능의 선택이 용이하다. 84년생 절대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96년생 노력에 대한 결실이 나타나기에는 아직 이르다. 행운의 숫자 : 22, 82</p>	<p>42년생 자유로운 상태로 놔두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 54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응했을 때 효과를 본다. 66년생 최후의 결정은 자신이 직접 내리는 것이 옳다. 78년생 시 각적으로 판단하면 오류가 생긴다. 90년생 스스로 돌이켜 본다면 이익의 폭을 넓힐 수 있다. 02년생 과정은 우여곡절 이 있을지라도 결과가 양호하리라. 행운의 숫자 : 28, 52</p>
<p>37년생 진퇴를 분명히 해야 손실을 줄인다. 49년생 주체성을 가지고 임한다면 하등의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61년생 자신의 진가를 알아주는 이가 생긴다. 73년생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인과 관계가 성립 하겠다. 85년생 무리한 판단을 자제하고 순리적으로 처리함이 해법이다. 97년생 과잉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20, 88</p>	<p>43년생 노력에 비해 후한 대가가 따르리라. 55년생 부작용의 원인이 해소 되어야 생산적으로 전환 된다. 67년생 번거로움을 차치하고 솔선수범 한다면 효과는 배가 되리라. 79년생 가까운 곳에 분명히 하자가 있을 것이니 잘 살펴보라. 91년생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로다. 03년생 발전할 수 있는 희망적인 징후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5, 92</p>
<p>38년생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타협할 수도 있다. 50년생 상호간에 공동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 이익이다. 62년생 중복 되지 않았는지 세심하게 살펴 볼 일이다. 74년생 경쟁과 운유책을 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86년생 가벼운 언행이 시비로 비화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98년생 대상의 선별에 신경 써야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행운의 숫자 : 21, 57</p>	<p>32년생 인식을 달리한다면 일취월장 한다. 44년생 돈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생긴다. 56년생 진실이 왜곡 될 수도 있는 현상을 감안해야 한다. 68년생 노동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이 발생하는 동세이니라. 80년생 주변을 곁여 함께 나누는 행복이로다. 92년생 고정 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상당히 곤혹스럽겠다. 행운의 숫자 : 48, 77</p>
<p>39년생 넘어가려하지 말고 밝혀야만 하느니라. 51년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불안감을 떨쳐버려도 된다. 63년생 백 번의 구상보다 단 한 번의 실행이 의미가 있다. 75년생 파격적 발전으로 인해 성과가 크겠다. 87년생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일보도 나아가기 어렵다. 99년생 집착할수록 손해이니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4, 56</p>	<p>33년생 선수를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45년생 현재의 처지도 분수에 순응하는 것이 맞다. 57년생 수심이 깊으면 건너야 할 배가 필요하다. 69년생 인과응보의 원리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81년생 구관이 명관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 하게 된다. 93년생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준비 하고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00, 93</p>
<p>40년생 망심하다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52년생 상황에 맞춰서 참신한 변화를 꾀해 볼 필요가 있느니라. 64년생 평상시에는 전혀 접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이 보인다. 76년생 폭 넓은 시각으로 대응 하는 것이 용이하다. 88년생 잭대들 갖고 마음을 굳게 먹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00년생 요령껏 해소 할 수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19, 51</p>	<p>34년생 드러내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이 급선무다. 46년생 작은 것이 쌓이면 못물 터지듯 할 수 있다. 58년생 의행까지 손질 한다면 훨씬 더 빛난다. 70년생 오는 손님 막지 말고 가는 손님 잡지 말지마라. 82년생 일반적 보편성을 겸여한 주관은 오류를 날기 쉬운 국량이다. 94년생 궁급해 왔던 바를 명쾌하게 파악한다. 행운의 숫자 : 06, 81</p>
<p>41년생 특별함을 도모하게 되는 진귀한 계기가 주어질 것이니 놓치지 말라. 53년생 이체로 세계를 점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65년생 취하고 버림에 있어서 실속이 있어야겠다. 77년생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것을 맞이하게 된다. 89년생 밝고 활기차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01년생 예상이 빚가 버릴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7, 72</p>	<p>35년생 느슨해진다면 곤란할 것이니 바짝 잡아 당겨줘야만 한다. 47년생 참신한 발상은 성공을 이끌기에 충분하다. 59년생 너무 왕성하면 머지않아 쇠하리라. 71년생 가던 길을 되돌아보면 점검해야 할 일이 눈에 띈 것이다. 83년생 제일 처음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니라. 95년생 실형의 계기가 마련 되면서 행복수가 매우 높아진다. 행운의 숫자 : 03, 54</p>